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경훈* · 최수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 및 이들의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의 인과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에는 2,351명이, 2차년도에는 2,280명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들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은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또래애착과 사회적 관계 요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또래애착은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는 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는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관계 요인은 외현화 문제에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요인들은 직간접적으로 복합적인 경로를 거치며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외현화 문제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교신저자, felizchoi@pusan.ac.kr

I. 서 론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환경 내에서의 경험은 이들의 심리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 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경험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송영명, 이현철, 2011). 학교 내 비지지적이거나 갈등적인 또래 관계를 경험한 경우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정체되고 공격성,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Janis, Margaret & Charlotte, 1995; Robert, Kristi, Kenneth, Gregory & John, 2001),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 또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Rebecca, Jeffrey, Jeffrey & Marilyn, 2005). 이와 같이 또래 및 교사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다양한 외현화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과잉행동, 비행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 혹은 일탈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국립특수교육원, 2009),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이어져 심리적 부적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Show, Gilliom, Ingoldsby & Nagin, 2003).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적응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청소년의 문제행동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내적 요인과 더불어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심리내적 요인으로는 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 애착 및 애착 안정성 등이 있으며(백혜정, 황혜정, 2006; Allen, Porter, McFarland, McElhaney & Marsh, 2007),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또래 및 교사관계, 반사회적 또래 관여 등이 있다(조은숙, 서지민, 2010; Doumen et al., 2008; Robert et al., 2001).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해 부분적이고 제한된 설명만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조은숙과 서지민(2010)은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각각 개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만 알아보았다. 청소년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김동일, 최수미, 홍성두, 2007).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통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요인으로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관계가 외현화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이전까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던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경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실제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적절한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원인을 가정환경에 두는 경우가 많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 과정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여러 연구들에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거부, 제재, 심리적 통제를 받은 아동은 외현화 문제가 심화된 반면(김민정, 도현심, 2001; 정문자, 김문정, 2004), 부모의 애정과 지지 및 행동적 통제를 받은 아동은 외현화 문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Aunola & Nurmi, 2005; Eisenberg, Zhou, Spinrad, Valient, Fabes & Liew, 2005). 그러나 한편으로 황혜정, 천희영과 옥경희(2010)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자기존중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남현미, 옥선화, 2001),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심리내적 변인으로, 예를 들면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과 같은 것들이다.

자기존중감이나 또래애착과 같은 특성들은 성장 과정에 초기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

으며 대부분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들로 부모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존중감의 경우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을 밝혀왔으며(이주리, 2008; Scott, Carolyn, Linda, Andrew & Pedro, 2007), 또래애착 또한 긍정적이거나 애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또래애착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이러한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은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된 심리내적 변인으로써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이다. 먼저, 자기존중감은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설명하는 심리내적 요인으로써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 외현화 문제의 완화를 돕는 선행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이주리, 2008;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Baumeister, Smart and Boden(1996)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격 성향이 강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불안정한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박영란, 이주리, 2011). 또 한편으로 오영경과 이형실(2010)은 자기존중감이 내재화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현화 문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관련 요인들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래애착 또한 외현화 문제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로써(유혜경, 남현우, 2010), 청소년들은 생애 초기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이후에는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은 이후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여러 애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은 공격성을 포함한 여러 문제행동의 발달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또래애착과 관련해서, Allen et al.(2007)은 애착 안정성이 외현화 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몇몇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외현화 문제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거나(전지영, 2010),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등(유혜경, 남현우, 2010), 연구들 간의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들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 특히 그 중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내적 변인들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고 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2.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간의 관계

외현화 문제의 예측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는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일차적으로 그 기반을 가정환경에 두고 있기에(임성택, 김나연, 주동범, 2010),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나 부모양육태도는 향후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된다. 특히,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지, 정서,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국립특수교육원, 2009), 이후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간섭하며, 혹은 방임할 경우에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영희, 2006; 정미경, 2002).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친밀할수록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성택 외, 2010; 왕혜옥, 김광웅, 2004).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또래 및 교사와의 실제적인 관계 혹은 관계적 유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예측하는 심리내적 요인으로는 ‘자기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거나 바람직하게 여기는 정도’ 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데(Coopersmith, 1967; Rosenberg, 1965), 이러한 자기 평가가 타인에게 투사됨으로써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병숙, 2003). 즉 자기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의 방식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Coopersmith, 1981), 자신에게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해석을 하여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Murray, Holmes & Collins, 2006).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과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느끼며(채유경,

2004), 부정적인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등, 효율적인 대인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특히 자기존중감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 및 교사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은민, 2010; 배은경, 201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심리내적 요인으로 ‘또래애착’을 들 수 있다. 또래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 혹은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이 토대가 된 것으로, ‘또래관계 속에서 아동이 또래에 대해 형성한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아동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와의 일방적인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추구하게 되고, 이후 또래집단 속에서 또래와의 상호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나간다(Ainsworth, 1989: 홍주영, 도현심,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또래와의 심리적 애착은 실제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또래애착은 또래 및 교사관계를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박은민, 2010; 석주영, 박인전, 2009). 즉,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의 상당 부분이 학교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각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외현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변인들은 각각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였는데, 특히 사회적 관계가 갈등적이거나 비 지지적일 때 외현화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단편적으로만 보여주고 있고, 변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경로 및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요인들의 인과관계의 결과로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경로를 밝히는 것은 외현화 문제 발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시간이 경과한 후 외현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요인들은 향후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

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및 외현화 문제 간의 전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는 동시에, 각각의 요인들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외현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외현화 문제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관계 간 인과관계

- 1) 사회적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 또래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사회적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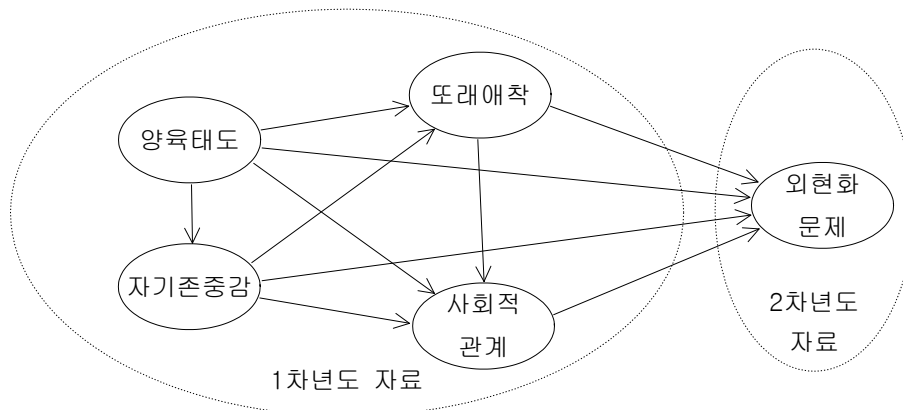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문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1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검증될 것이다. 1차년도 자료를 통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 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의 관계를 알아보고,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1년 뒤에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의 직간접 관계와 더불어, 외현화 문제의 발달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초1, 초4, 중1 3개 패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실태 및 변화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중1 패널을 대상으로 한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1 패널의 연구대상은 2009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한 것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16개 특별시, 광역시, 시·도별 중학교 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 표본수에 따라 학교 수와 학교를 결정하였으며, 추출된 중학교 1학년의 학습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2,351명(남학생; 1,176명, 여학생; 1,175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차년도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차년도 대비 97.0%의 표본을 유지하여 2,280명(남학생; 1,152명, 여학생; 1,128명)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는 1차년도 KCYPS의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KCYPS의 양육태도 척도는 허묘연(2004)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독(3), 애정(4), 비밀관성(3), 과잉기대(4), 과잉간섭(4), 합리적 설명(3)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이정윤, 최수미, 2011; Barber, 1996; Baumrind, 1991; Deci & Ryan, 1985; Steinberg, 1990;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다소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지와 통제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Steinberg(1990)와 Barber(1996)는 통제를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세분화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수용과 심리통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수용’은 부모의 따뜻함을 의미하며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심리통제’는 자녀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 발달을 침해하거나 저해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를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태도이며, ‘행동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녀에게 규칙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Reitz, Deković & Meijer, 2006; 이정윤, 최수미,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분류를 따라 부모양육태도를 ‘수용’, ‘심리통제’, ‘행동통제’로 나누어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밀관성 요인을 제외하고, 애정, 합리적 설명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수용’ 요인으로, 과잉기대, 과잉간섭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심리통제’ 요인으로, 감독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행동통제’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수용 요인은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통제 요인은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부모님께서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통제 요인은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

지 알고 계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은 7문항, 심리통제는 8문항, 행동통제는 3문항으로, 전체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양육태도를 지각함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3, 하위요인별로는 수용 .86, 심리통제 .80, 행동통제 .76으로서,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2) 자기존중감

본 연구는 1차년도 KCYPS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KCYPS의 자기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 10문항 중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주장된 8번 문항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를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이는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와 이상민(2009)의 연구에 근거한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8번 문항의 경우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8번 문항이 다른 9개 문항들과 부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전체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고 동시에 자기존중감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8번 문항을 제외한 총 9개 문항(긍정 5개문항, 부정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7로서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양호하였다.

3) 또래애착

본 연구는 1차년도 KCYPS의 또래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KCYPS의 또래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소통(3), 신뢰(3), 소외(3)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소외 요인이 또래애착을 설명하기에 내용타당도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신뢰도가 .62로 낮고, 또한 부정 문항인 관계로 전체 요인 구조가 명확하게 3요인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긍정 문항과 부정문항의 2요인으로 나누어져, 전체 척도에서 소외 요인을 제외하고 의사소통(3문항)과 신뢰(3문항) 요인으로 구성된 6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는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정도를 묻는 내용(문항 예: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과 친구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묻는 내용(문항 예: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6, 하위요인 별로는 의사소통 .76, 신뢰 .76로서,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4) 사회적 관계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1차년도 KCYPS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KCYPS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활동(5), 학교규칙(5), 교우관계(5), 교사관계(5)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요인을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교우관계 요인의 문항 중,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에 내용타당도 면에서 적합하지 않고, 부정문항으로써 요인구조에 묶이지 않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인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교우관계(4문항)와 교사관계(5문항)로 구성된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묻는 내용과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7, 하위요인별로는 교우관계 .60, 교사관계 .83으로,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교우관계의 경우 다소 낮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외현화 문제

본 연구는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2차년도 KCYPS의 정서 관련 문항들 중 주의집중과 공격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정서·행동문제 척도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과 공격행동 요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 6문항,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등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을 묻는 문항과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등 공격적인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6, 하위요인별로는 주의집중 .79, 공격성 .81로서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PASW 18.0을 활용하여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적합도 지수 중 χ^2 test statistics,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NFI, TLI,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적합성이 검증된 연구모형의 추정치를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분석을 위해 Amos 20.0이 사용되었다.

V.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먼저,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urran, West and Finch(1996)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사용된 변인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이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잠재변수들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점검의 근거가 되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은 .03~.43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변인 간의 상관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애착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은 .74, 사회적 관계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은 .29,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은 .26으로 각각 변인들 간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

연구모형 내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28***	1									
3	.43***	.03	1								
4	.39***	.07**	.30***	1							
5	.27***	.22***	.21***	.57***	1						
6	.33***	.01	.25***	.41***	.22***	1					
7	.30***	.02	.22***	.41***	.23***	.74***	1				
8	.28***	.06*	.28***	.44***	.27***	.48***	.46***	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9	.31***	.04	.27***	.29***	.15***	.21***	.18***	.29***	1		
10	-.16***	-.19***	-.16***	-.16***	-.20***	-.12***	-.11***	-.20***	-.13***	1	
11	-.14***	-.20***	-.13***	-.15***	-.21***	-.07***	-.07***	-.20***	-.11***	.26***	1
M	2.93	2.48	3.16	2.91	2.86	2.90	3.03	2.99	2.71	2.39	2.13
SD	.60	.59	.65	.59	.70	.59	.64	.40	.66	.53	.57
왜도	-.52	-.04	-.62	-.29	-.25	-.32	-.47	-.17	-.16	-.00	.08
첨도	.37	-.15	.15	.06	-.41	.93	.39	.78	-.10	.66	.0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수용, 2. 심리통제, 3. 행동통제, 4. 자기존중감1, 5. 자기존중감2,
6. 의사소통, 7. 신뢰, 8. 교우관계, 9. 교사관계, 10. 주의집중, 11. 공격성

2.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들이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 우도법으로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선택한 적합도 지수는 χ^2 , NFI, TLI, CFI, RMSEA이며, 표 2와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chi^2=496.041$, $df=34$, $p < .001$ 로 모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χ^2 검증의 특성상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χ^2 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NFI, TLI, CFI는 각각 .929, .871, .933이었고 RMSEA는 .077로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496.041***($df=34$)	.929	.871	.933	.077

*** $p < .001$

그림 2는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외현화 문제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beta=.52(p<.001)$, $\beta=.26(p<.001)$ 으로 정적 경향을 보였다.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의 관계도 정적 경향을 보였으며($\beta=.36$,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beta=.23(p<.001)$, $\beta=.31(p<.001)$, $\beta=.48(p<.001)$ 로 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끝으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관계는 각각 $\beta=-.11(p>.05)$, $\beta=-.55(p<.001)$ 로 부적 경향을 보였으나, 또래애착과 자기존중감은 각각 $\beta=.29(p<.001)$, $\beta=.05(p>.05)$ 로 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들 중 또래애착과 사회적 관계 요인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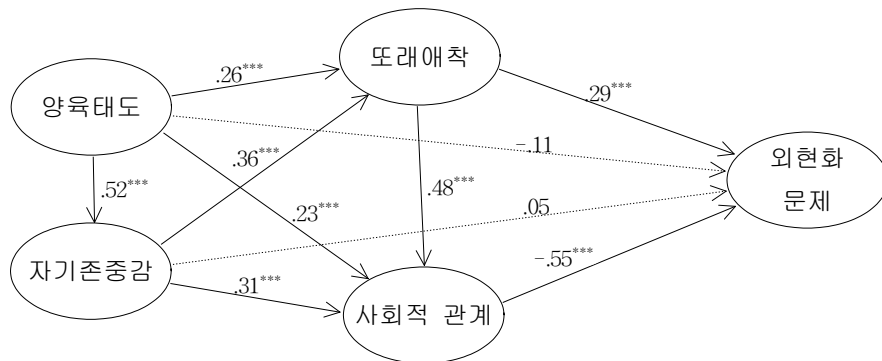


그림 2.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외현화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위의 결과들을 볼 때,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의 경우 외현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보통 연구모형은 이론적 혹은 실증적 기준을 통해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이정운, 최수미, 2011),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을 제거함으로써 모델의 간명성을 높이는 실증적 기준을 통해 모형을 수정하였다. 모형을 수정하여 초기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카이제승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_p=6.148(p>.05)$ 만큼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부합도가 나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에서 제시되었듯이 수정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가 NFI .928, TLI .877, CFI .933, RMSEA .075로 초기 연구모형과 비슷하였으며, 수정모형의 간명성이 초기모델보다 높기에 수정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χ^2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496.041*** (df=34)	.929	.871	.933	.077
수정모형	502.189*** (df=36)	.928	.877	.933	.075

*** $p<.001$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모형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beta=.53(p<.001)$, $\beta=.26(p<.001)$ 으로 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의 관계도 정적인 경향을 보였다($\beta=.36$,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beta=.26(p<.001)$, $\beta=.29(p<.001)$, $\beta=.48(p<.001)$ 로 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또래애착은 외현화 문제에 정적인 경향을($\beta=.31$, $p<.001$), 사회적 관계는 외현화 문제에 부적인 경향을($\beta=-.62$, $p<.001$)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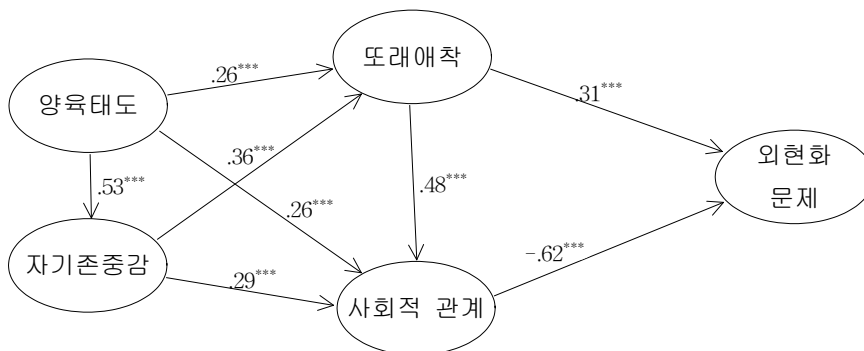


그림 3.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외현화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수정)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외현화 문제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525$, 총효과는 $\beta=.525$ 였으며, 또래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257$, 간접효과는 $\beta=.191$, 총효과는 $\beta=.448$ 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364$, 총효과는 $\beta=.364$ 였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 부모양육태도는 직접효과 $\beta=.261$, 간접효과 $\beta=.369$, 총효과 $\beta=.630$ 을, 자기존중감은 직접효과 $\beta=.292$, 간접효과 $\beta=.175$, 총효과 $\beta=.467$ 을, 또래애착은 직접효과 $\beta=.481$, 총효과 $\beta=.481$ 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외현화 문제와 관련해서 부모양육태도는 간접효과 $\beta=-.247$, 총효과 $\beta=-.247$ 을, 자기존중감은 간접효과 $\beta=-.173$, 총효과 $\beta=-.173$ 을, 또래애착은 직접효과 $\beta=.314$, 간접효과 $\beta=-.296$, 총효과 $\beta=.018$ 을, 사회적 관계는 직접효과 $\beta=-.616$, 총효과 $\beta=-.616$ 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표 4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외현화 문제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양육태도 → 자기존중감	.525		.525
부모양육태도 → 또래애착	.257	.191	.448
자기존중감 → 또래애착	.364		.364
부모양육태도 → 사회적 관계	.261	.369	.630
자기존중감 → 사회적 관계	.292	.175	.467
또래애착 → 사회적 관계	.481		.481
부모양육태도 → 외현화 문제		-.247	-.247
자기존중감 → 외현화 문제		-.173	-.173
또래애착 → 외현화 문제	.314	-.296	.018
사회적 관계 → 외현화 문제	-.616		-.616

VI. 결론 및 논의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중, 심리내적 요인으로는 자기존중감, 애착 등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len et al., 2007; Aunola & Nurmi, 2005; Donnellan et al., 2005; Rebecca et al., 2005; Robert et al., 2001).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단편적으로만 알아보았으며, 이는 외현화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부분적인 이해로만 그치게 하였다. 외현화 문제가 어떠한 심리내적인 과정이나 환경적인 기제를 거쳐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환경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그로 인해 형성된 심리내적 요인인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로써의 사회적 관계 요인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발달적 관점에서 이러한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외현화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인과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간의 관계

먼저, 가정환경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이로 인해 형성된 심리내적 요인인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에게 보다 지지적이고 온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자기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지지적인 양육을 할 경우에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이주리, 2008; Scott et al., 2007). 한편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 간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은 이후 또래와의 애착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애정적으로 대했을 경우 또래애착 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또래애착에 긍정적인 영향력

을 나타낸다는 장석진 외(2012)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지지적이고 애정적일수록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선(2006), 왕혜옥과 김광웅(2004)은 부모가 자녀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자녀를 잘 수용해줄 경우에 자녀의 또래 및 교사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자기존중감의 향상이 사회적 관계 요인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Murray, Holmes and Collins(2006)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해석을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 향상되었는데,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와의 심리적 애착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박은민, 2010; 석주영, 박인전, 2009). 이처럼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은 각각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이라는 심리내적 변인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관계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박재산, 문재우, 이미순과 강월숙(2011)은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용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감독할 때 자기존중감이 높아지며, 이러한 향상된 자기존중감은 교사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와 관련해서, 왕혜옥과 김광웅(2004)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경우 애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는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은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가정환경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요인은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존중감이나 또래애착과 같은 심리내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2.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는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데, 요인들 간의 이러한 복합적인 경로의 결과 요인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들이 외현화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외현화 문제와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지만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로, 부모의 애정과 지지 및 행동적 통제를 받은 아동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일치되지 않는다(Aunola & Nurmi, 2005; Eisenberg et al., 2005).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 및 사회적 관계 요인의 수준을 높이고, 이러한 변인들의 간접적인 관계에 의한 결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Barnown, Lucht, and Freyberger (2005)는 자기존중감과 또래관계 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거절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할 경우 자기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거절되지 않고 원만히 수용될 때, 결국 이러한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은 공격성과 비행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자기존중감, 또래 및 교사관계와 같은 변인이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권연희, 2012; 손지영, 김현철, 2004; Donnellan et al., 2005). 이와 같은 연구들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양육태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청소년의 내면에 형성된 자기존중감이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존중감은 심리적 건강과 적응 및 문제행동의 완화를 돕는 심리내적 요인으로써, 그동안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 비행,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이주리, 2008; Donnellan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자기존중감이 외현화 문

제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았다. 먼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점과 관련해서, Baumeister et al.(1996)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공격성향이 강해지게 된다고 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문제행동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점과 관련해서, 오영경과 이형실(2010)은 자기존중감이 내재화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현화 문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자기존중감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존중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우울이나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자기존중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지만, 공격성처럼 파괴적인 욕구가 외부로 분출되는 형태의 외현화 문제는 자기존중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존중감은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또래애착과 사회적 관계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와 관련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Barnown et al.(2005)은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이 공격성과 비행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함으로써, 외현화 문제에 대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혜미와 류나미(2007)는 자기존중감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요인의 완전 매개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의 완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즉, 외현화 문제의 완화가 자기존중감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지지 혹은 또래수용과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에 의한 간접 효과라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과 외현화 문제 간 관계에서 또래애착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은 관계적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이러한 관계적 요소가 외현화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또래애착과 외현화 문제 간의 직접적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예컨대 Allen et al.(2007)은 부모 및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이후 문제행동의 발생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애착 안정성만 놓고 보면 안정적인 애착이 불안이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또래애착은 친구에 대한 강한 정서적 신뢰와 의존을 포함하

는 개념이며, 따라서 애착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속에서 친구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동화되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소희 외(2002)는 의존가능성과 친밀성이 높고 친구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경우에 또래집단 속에서 청소년이 좀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지영(2010) 또한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강할 경우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문제가 심화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써의 또래애착은 직접적으로 외현화 문제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한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관계 요인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에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순적이다. 즉, 또래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가 공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또래와의 애착 안정성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유능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실과 정선아(2012)는 애착 안정성이 또래관계 기술과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된 관계적 요소들이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넷째, 사회적 관계와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이나 주의산만과 같은 문제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에서 친구 혹은 교사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Janis et al., 1995; Robert et al., 2001; Rebecca et al., 2005), 이는 본 연구와 부합한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의 완화에 기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자기존중감, 또래애착, 사회적 관계 요인들은 직·간접적으로 복합적인 경로를 거치며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외현화 문제의 발생이 단순히 학교에서의 관계 부적응이나 심리내적인 문제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인과적 맥락에 따른 결과라는 데 있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된 자기존중감과 또래애착과 같은 심리내적 요소들이 학교에서의 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관계적 요

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즉,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이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고 또래애착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관계적 요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외현화 문제의 완화 및 예방을 위해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적 요인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또래애착이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는 정적 관련성을, 간접적으로는 부적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밝혔듯이 모순적이다. 즉, 또래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가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또래와의 애착 안정성이 사회적 관계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래애착이 외현화 문제를 낮추는데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완화 및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관계 능력의 증진이 필요하다. 마지막 시사점은 본 연구가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외현화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은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래애착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리(2008)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통제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1년 뒤의 외현화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 모형을 검토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자아통제와 자기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만 미쳤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적 맥락에 따라 요인들의 관계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전적으로 시간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횡단 연구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황혜정, 천희영과 옥경희(2010)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하고 있으며, 오영경과 이형실(2010)은 자기존중감이 내재화 문제는 설명하는 반면 외현화 문제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이 말해주는 바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이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여러 요인들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향후 진행될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는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자료만 2차년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지, 나머지 변인들은 1차년도 자료를 통해 횡단적인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들은 횡단적 차원에서만 연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여러 심리적 변인들은 시간의 흐름이나 다양한 환경의 영향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자세하기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단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아동기 초기의 부모양육태도가 성장 이후 자기존중감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간차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적 차이를 두려고 기획하였으나, 이를 알아보기 위한 패널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고려하여 종단 설계를 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게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한편, 추가적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기간의 정밀한 후속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모형에서는 벗어났으나, 패널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매 시점마다 통제할 수 없었다. 즉 1차년도와 2차년도 패널자료에서 측정된 요인들이 각기 다르며, 따라서 두 시점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일 요인의 변화량을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발달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게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개선하여 변인들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척도 문제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이미 실시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대상 구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직접 작성하지 못하고 이미 실시된 조사에서 해당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구인과 패널자료에서 제시된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한 구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여러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들을 토대로 부모양육태도를 정의하려고 하였으나, 패널자료에서 제시된 척도는 그에 맞지 않아 요인분석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들을 다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들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에 맞는 척도를 사용하거나, 문항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사회적 관계 변인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양호하였으나, 하위 변인들 중 교우관계 변인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다른 하위 변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패널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권연희 (2012). 남녀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양육행동과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1-19.
- 김동일, 최수미, 홍성두 (2007). 청소년들의 심리내적 위험요인과 문제행동의 관계: 환경적 보호요인의 매개효과검증. **상담학연구**, 8(3), 1121-1136.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박영란, 이주리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61-79.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에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박재산, 문재우, 이미순, 강월숙 (2011). 부모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187-200.
- 박찬선 (2006). 초등학생의 '내적-외적 변인'이 스트레스 인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477-514.
- 배은경 (201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85-100.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석주영, 박인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 손지영, 김현철 (200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331-358.
- 송영명, 이현철 (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91-112.

- 송영희 (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불안과 친구관계의 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경,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4), 51-64.
- 왕혜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 유병숙 (2003).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경, 남현우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 모 애착, 또래애착,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6), 215-238.
- 윤혜미, 류나미 (2007).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3, 215-236.
-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청소년의 애착 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41(2), 274-282.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 수준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정윤,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 이주리 (2008).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인간발달연구**, 15(2), 87-102.
- 임성택, 김나연, 주동범 (2010). 초등학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의 관련성. **한국교육연구**, 27(3), 23-42.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전지영 (2010). 아동의 생태체계적 환경요인과 비행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구조적 매개효과 검증. **동광**, 106, 217-252.
- 정문자,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은숙, 서지민 (2010).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9(1), 1225-8482.
-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 최은실, 정선아 (2012). 초등학교의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 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43-464.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문제론**. 서울: 교육과학사.
- 허효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2(2), 170-18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황혜정, 천희영, 옥경희 (2010).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대한가정학회지**, 48(7), 99-110.
- Allen, J. P., Por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 (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26(6), 3296-3319.
- Barnown, S., Lucht, M., & Freyberger, H. J. (2005). Correlates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1(1), 24-39.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s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rowne,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Freeman & Co.
- Coopersmith, S. (1981). *The adolescents of self-esteem* (2nd eds). Pale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 328-335.
- Doumen, S., Verschueren, K., Buyse, E., Dermeijs, V., Luyckx, K., & Soenens, B. (2008).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teacher-child conflict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kindergarten: A three 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7(3), 588-599.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 578-594.
- Janis, B. K., Margaret, B., & Charlotte, J. P. (1995). Developmental patter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825-843.
- Murray, S. L., Holmes, J. G., & Collins, N. L. (2006). Optimizing assurance: The risk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2*(5), 641-666.
- Rebecca B. S., Jeffrey R. M., Jeffrey M. A., & Marilyn J. E. (2005). Trajectories of classroom externalizing behavior: Contributions of child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an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during th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1), 39-60.
- Reitz, E., Deković, M., & Meijer, A. M. (2006).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in early adolescence: Child behaviour as moderator and predictor. *Journal of Adolescence, 29*, 419-436.
- Robert, D. L., Kristi, Y. J., Kenneth, A. D., Gregory, S. P., & John, E. B. (2001). Peer rejection in childhood,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in early adolescence, and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2), 337-35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W. P., Carolyn, S. H., Linda, C. R., Andrew, B., & Pedro, C. F.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6*(6), 760-772.
- Sho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 (2003). Trajectories leading to school-age conduct problem.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89-200.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nd social relationship on externalizing problems

Kang, Kyoungun* · Choi, Sumi*

This study sought to explain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influence and paths among parenting style, self-esteem, peer attachment, social relationship,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1st and 2nd wave dat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as used for this study. A total of 2,351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in the 1st wave and 2,280 students in the 2nd wave were included for the data analysis for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yle,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social relationship, the greater the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increased, the more positive social relationship was. Parenting style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as well as directly. Secondly,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n externalizing problems, parenting style and self-esteem did not have a direct affect, but indirectly affected externalizing problems through peer attachment and social relationships. Peer attachment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but indirectly had a negative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s. Social relationship had a negative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bo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in the concluding section of the end of paper.

Key Words : parenting style, self-esteem, peer attachment, social relationship, externalizing problems

투고일 : 2013. 6. 10, 심사일 : 2013. 9. 13, 심사완료일 : 2013. 9. 23

* Pusan National University